



일본, 대만의 신지급여력제도 도입 현황과 시사점

노건엽 연구위원, 손민숙 연구원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 금융당국이 신지급여력제도를 시행하거나 추진 중인 가운데 아시아 국가 중 보험시장 규모가 큰 일본과 대만이 새로운 지급여력제도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과 계획을 공표하였음. 우리나라는 그간 K-ICS 평가 방법론과 시행 일정 위주로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일본 및 대만 사례와 유사하게 내부모형, 공시, 병행 시행을 포함한 경과조치, 규정 개정 일정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 금융당국이 신지급여력제도를 시행하거나 추진 중인 가운데 아시아 국가 중 보험시장 규모가 큰 일본과 대만이 새로운 지급여력제도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과 계획을 공표하였음
 - 한국은 2023년을 목표로 신지급여력제도(K-ICS)를 준비 중이며 유럽 SolvencyII와 중국 C-ROSS는 2016년, 캐나다 LICAT은 2018년, 싱가포르 RBC2는 2020년에 시행함
 - 최근 일본 금융청과 대만 금융감독관리위원회는 구체적인 도입 일정과 계획을 제시함
 - 생·손보 전체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한국은 세계 7위의 보험시장¹⁾이며 일본 3위, 대만 10위임
- 일본은 금융청 주관 외부자문위원회를 구성²⁾한 후 제도의 의의와 목적, 부채평가 요소별 기본개념, 내부모형 범위 등 1년간의 논의 결과를 발표하고 경제가치 기반 지급여력규제에 대한 단계별 도입 일정을 제시함
 - 자문위원회는 2019년 5월 최초 회의 후 1년간 10차례 실시한 회의 자료와 논의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함
 - 국제 동향, 제도의 의의와 목적, 부채평가 요소별 기본개념 논의, 내부모형 범위, 제도 지원사항 등 제도 도입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을 정리하였음
 - 표준모형 검토, 내부모형 심사기준, 타당성 검증, 경제가치 기반 정보, 공시항목 등은 2024년에 최종기준을 확정하고 실무해석지침 작성 후 2025년 4월³⁾부터 시행할 예정임(<표 1> 참조)

1) 수입보험료를 USD 기준으로 환산 시 미국 2.5조 불, 중국 6,174억 불, 일본 4,593억 불, 한국 1,745억 불, 대만 1,178억 불로 나타남(Swiss Re(2020), "World insurance: riding out the 2020 pandemic storm")

2) 황인창(2019. 9. 23), 「일본 신지급여력제도 도입 논의와 시사점」, 『KIRI 리포트』

- 또한, 10차례 실시한 회의 자료 및 계량영향 평가 결과가 모두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제도 도입에 따른 이해관계자들의 논의 과정과 도입 시 영향을 상세히 알 수 있음

〈표 1〉 일본의 신지급여력제도 도입 계획

항목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Pillar1	일반·기준 수립	영향평가 및 국제동향 기반 잠정 결정				최종기준 확정	4월 1일 시행
	표준모델	매년 필드테스트 실시		관계자 의견교환 및 단계적 기준 협의	기준화를 위한 작업 (고사작성·의견공모 등)	실무적 해석 관련 지침 등 작성	
	내부모델	데이터 분석	더 정밀한 데이터의 수집·분석	계수변경·리스크 구분 세분화 검토	필요에 따라 기술적 조정		
	타당성 검증	보험회사 자체평가결과 등에 따라 대화 실시, 실태 파악·실무적 논점 도출		보험계리사회 등과 협의하면서 계산 및 검증 체제 정리	임시 심사 기준안에 따라 예비심사 (자연재해 모델 우선 심사)	구체적인 제도·기준 검토	
Pillar2	ORSA, 경제가치 기반 재무회계·리스크 정보 등 검토 ⇒ 조기 경보 제도·공청회 등에 반영						
Pillar3	Pillar 1·2의 검토상황을 바탕으로 공개항목 검토		공개항목에 대한 구체적 검토 ⇒ 기준화를 위한 작업				

자료: 일본 금융청(2020.5.20.), “경제가치기반 지급여력규제에 관한 유식자회의 보고서(안)”

■ 대만의 금융감독관리위원회는 새로운 지급여력제도에 대해 영향 평가, 병행 시행, 전환 기간 등 3단계로 구분한 도입일정을 발표하고 2026년 시행을 목표로 준비할 것을 제안함 (〈표 2〉 참조)

- 영향 평가기간인 1단계에서 보험회사는 제도 도입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고 대만 보험서비스기관(TII)이 영향 평가 지원 및 국제보험자본기준(ICS)의 사례를 연구하며 감독규정을 검토함
- 2단계에서 보험회사는 현행 RBC와 새로운 지급여력제도를 3년간 병행하고 감독당국은 대만 보험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감독규정을 개정함
- 마지막 3단계는 제도 전환을 위한 준비기간으로 대만의 IFRS 17 적용시기와 동일하게 2026년에 새로운 지급여력제도를 시행할 예정임

3) 일본의 회계연도는 매년 4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임

〈표 2〉 대만의 차세대 지급여력제도 추진 일정

구분	일정	계획 내용
제1단계 [영향 평가 기간]	2020~2021년	1. 산업 충격 영향 평가(대만 보험서비스기관인 TII 협조하에 보험회사가 테스트 진행) 2. TII가 ICS 사례 연구 3. 감독 규정 연구 및 논의
제2단계 [병행시행 기간]	2022~2024년	1. 3년간 병행 시행: 보험회사는 감독당국이 요구하는 RBC 비율 제출과 동시에 신지급여력비율을 연 1회 제출 2. 경과조치: 대만 보험산업의 장기계약 특성을 고려하고, EU의 Solvency II 및 ICS 경과조치를 참조하여 대만 적용방안 수립 3. 감독규정: 대만 보험산업의 경영 환경 적합 여부 평가 4. 감독 규정 개정
제3단계 [전환준비 기간]	2025년	신규 제도 시행 전 보험회사에 전환 준비기간 제공
시행 예정	2026년 시행	신지급여력제도를 토대로 산출된 비율을 감독지표로 사용

자료: 金融監督管理委員會(2020. 7. 28), “推動保險業新一代清償能力制度相關時程”

■ 우리나라는 그간 K-ICS 평가 방법론과 시행 일정 위주로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일본 및 대만 사례와 유사하게 내부 모형, 공시, 병행 시행을 포함한 경과조치, 규정 개정 일정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는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단」(‘13. 9월)⁴⁾을 시작으로 「민·관 합동 보험권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위원회」(‘17. 3월)⁵⁾을 거쳐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18. 11월)⁶⁾에서 제도를 준비함
- 저금리에 따른 자본 부족 우려로 인해 K-ICS 평가 방법론을 지속적으로 개선⁷⁾하고 IFRS 17 시행시기 연기에 따라 시행 일정⁸⁾ 위주로 논의가 진행되었음
- 내부모형⁹⁾, 자체리스크관리기준(ORSA)¹⁰⁾¹¹⁾ 등은 일부 진행되었으나 공시, 경과조치, 규정개정 일정 등 전체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일본은 논의 배경과 영향 평가 결과 등을 공개하나 우리나라는 K-ICS 공개초안 및 수정안 위주의 자료만 있어 평가방법 및 과정, 영향 평가 결과 등의 공개를 통해 이해관계자 간 소통과 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kiri](#)

4)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3. 9. 25),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 2단계(IFRS4 PhaseII) 도입준비단 구성”
 5)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7. 3. 8), “민·관 합동 보험권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위원회 발족”
 6)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8. 11. 27),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구성 및 제1차 회의 개최”
 7)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9. 10. 10), “LAT 책임준비금 적립에 따른 보험회사 당기손실확대문제를 개선하고 IFRS 17 시행에 대비하여 보험회사의 자본확충 노력을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8)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9. 6. 27), “원활한 보험 자본건전성 제도개선을 위해 충분한 사전영향 평가를 거쳐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9)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8. 8. 1),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대비 내부모형 승인 예비신청절차 착수”
 10)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8. 12. 13), “보험회사가 스스로 리스크와 지급여력을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1) 금융감독원(2018), “2018년 ORSA 운영실태 평가결과”